



적십자 창설 당시 구스타브 므와니에

프랑스와 브뤼옹

구스타브 므와니에

1826 - 1910

Original Cover by Roger Pfund's workshop

Original French edition:
Éditions Slatkine, Geneve, 2010



© Humanitarian Geveva

route du Grand-Lancy 92 1212 Grand-Lancy Suisse
president@shd.ch www.humanitarian-geneva.org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Korean Red Cross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대한적십자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1546-24-0

발간을 기념하며

2011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귀스타브 브와니에를 만나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적십자인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창시절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익숙한 이름 양리 뒤낭. 반면, 우리에게 귀스타브 브와니에는 적십자의 기원을 잘 아는 이들 외에는 낯설기 그지 없습니다. 이들 두 명의 세기적 인물이 함께 이루어낸 적십자 초기 운동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서로 쌓아왔던 우정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노력을 보게 된다면 적십자사가 어떤 아픔들을 보듬고 시작되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 전기(傳記)를 통해서, 1800년대 초 평범했던 인물의 탄생이 전 세계에 국제적 규범을 형성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도주의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끈 그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양리 뒤낭과 더불어 귀스타브 브와니에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동 전기(傳記)는 귀스타브의 탄생에서부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말년의 모습까지 섭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양리 와의 협력, 의견 차이와 오해로 인한 갈등... 그러면서 ‘인도주의’라는 정신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한 한 개인의 삶 속에 비춰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 자아와 철학 그리고 집요한 성격으로 적십자를 범세계적 운동으로 이끌며 초석을 다진 귀스타브는 어찌 보면 오늘날 다양한 인도적 요구에 직면한 우리에게, 힘들지만 가치 있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고집스러운 힘을 가지라

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십자운동이 한국에 뿌리 내린지도 어언 107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동안 적십자가 우리 한국인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든 원동력 또한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전기(傳記)는 양리 뒤낭의 멋진 생각을 기초로 국제적 운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귀스타브의 모습을 단지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의 초대 총재로서가 아닌 양리와 함께 했던 동시대 인물의 고귀한 생각과 노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스타브 브와니에의 전기(傳記)가 한글로 번역되어 출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작업이 가능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저자(著者) 프랑스와 브뉘옹(Francois Bugnion)께 감사를 드리며 인도법연구소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1.12.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 중근

in the Balkans" (1875–1878), "The Manual of the Laws of War" (1880),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303, 1994년 11월–12월호, pp.542–563.

André DURAND, "Gustave Moynier and the peace societie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314, 1996년 9월–10월호, pp.532–550.

André DURAND, "Le premier Prix Nobel de la Paix (1901): Candidatures d'Henry Dunant, de Gustave Moynier et du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Revue internationale de la Croix-Rouge, No.842, June 2001, pp.275–285.

André DURAND, Gustave Moynier, March 1999. 국제적십자 위원회 기록본 소장 육필본.

Alexis FRANÇOIS, Le Berceau de la Croix-Rouge, Geneva, Librairie Jullien, and Paris, Librairie Édouard Champion, 1918, p.336.

Véronique HAROUEL, "Aux origines de la justice pénale internationale: la pensée de Moynier", Revue historique de droit français et étranger, 77th year, No.1, 1999년 1월–3월호, pp.71–83.

Véronique HAROUEL, Genève–Paris, 1863–1918: Le droit

humanitaire en construction, Geneva, 양리 뒤낭 협회, ICRC, French Red Cross, 2003, p.819.

C.LUEDER, La Convention de Genève au point de vue historique, critique et dogmatique,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독어에서 번역, Erlangen, Édouard Besold, 1876, p.414.

* 사진 출처

- 므와니에 가족: 4, 8, 9번 (촬영 · 프레데릭 브와소나), 5번 (촬영 · A. 데트라), 14번 (촬영 · 아돌프 므와니에), 15번 (촬영 · 아돌프 므와니에)
- 국제적십자위원회 기록 보관소: 6번 (촬영 · 프레데릭 브와소나), 7, 11, 12, 13번 (촬영 · 프레데릭 브와소나)

- 초판발행 2011년 12월 20일
- 발행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 편집 및 디자인 에이치크리에이티브

구

스타브 므와니에는 실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앙리 뒤낭이 『솔페리노의 회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창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 므와니에는 적십자의 설립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1864년 8월 22일에 체결된 제네바협약은 현대 국제인도법의 출발점으로 대부분이 그의 펜 끝에서 나왔다. 므와니에는 1864년부터 1910년까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총재로 재임하면서 위원회의 정책적인 기본틀과 함께 업무의 근간이 되는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국제법학회의 창립자 중 한 명이며 국제형사재판 체계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와니에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이름은 곧 잊혀졌다.

단순하고 직설적인 문체로 쓰여진 이 짧은 전기는 귀스타브 므와니에의 일생과 주요 활동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인간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가 남긴 유산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프랑스와 브뤼옹은 인문학 학사학위 취득 후 정치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70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는 ICRC의 본부와 현장에서 모두 근무했으며, 2000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ICRC의 국제법 및 협력분야 책임자로 재직했다. 또한 국제인도법 및 적십자와 적신월사 운동의 역사에 대해 5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으며 2010년 5월부터는 ICRC총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